

한국 의학학술지의 인용도 및 인용분석지표의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itation analysis indices of Korean medical journals

이윤혜, 이춘실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Youn Hye Lee, Choon Shil Le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본 연구는 『KoMCI (Korea Medical Citation Index) 2000 한국 의학학술지 인용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의학학술지에 의한 인용을 통하여 한국 의학학술지를 평가하는 대규모의 인용문헌 분석을 시도하였다. 2000년도에 발행된 69종의 한국 의학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인용도와 각종 인용분석지표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러한 인용분석지표가 연구자의 업적평가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서론

국내에서 교수 및 연구자들의 연구업적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미국의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되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는 인용도나 영향력지표 (Impact Factor)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한국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학술지의 영향력지표값이 없기 때문에 가중치가 부여될 수 없어서 낮게 평가되어왔다. SCI를 통해서 국내 학술지 논문이 평가되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한국 의학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KoMCI(Korea Medical Citation Index) 2000 한국 의학학술지 인용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의학학술지에 의한 인용을 통하여 한국 의학학술지를 평가하는 대규모의 인용문헌 분석을 시도하였다. 2000년도에 발행된 69종의 한국 의학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인용도와 각종 인용분석지표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러한 인용분석지표가 연구자의 업적평가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2. 데이터 분석

2.1 한국 문헌의 인용도

2000년도 한 해동안 69종의 의학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총 7,856편이며, 이 논문들이 인용한

총 참고문헌수는 170,254건이다. 이는 한 논문당 평균 21.67건의 참고문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바탕이 된 『KoMCI 2000 보고서』는 데이터 입력 범위를 인용된 한국문헌의 경우만으로 제한하였는데, 7,856편의 논문에 인용된 한국문헌은 총 17,857건이었다. 이는 한국 의학논문 한 편당 평균 2.27건의 한국문헌을 인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 참고 문헌수 (170,254건) 중에서 한국문헌 인용 (17,857건) 비율은 10.49%에 불과하며 한 논문당 평균 2.27건의 한국 문헌을 인용한다. 한국 학술지 인용비율은 8.52% (14,511건)에 불과하며 한 논문당 평균 1.85건의 한국 학술지를 인용한다. 이는 우리나라 의학논문이 인용하는 문헌은 대부분 외국 문헌임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수치이다.

68종의 학술지 중 약 2/3에 해당하는 43종의 학술지가 한국문헌을 10% 미만으로 인용하며, 특히 5%에서 10% 사이로 한국문헌을 인용하는 학술지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2.2. 한국 학술지 인용도

한국학술지를 인용한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8.52%에 불과하지만, 인용된 한국문헌 중에서 학술지 논문의 비율은 81.26%로 한국 의학학술지 논문들이 많이 인용하는 한국 문헌의 유형은 학술지 논문이다.

인용된 한국문헌 중에서 학술지 논문의 비율이 80% 이상인 학술지는 58종이나 되는데, 특히 학술지 인용 비율이 90% 이상인 학술지가 절반 정도이다.

한국 문헌 인용 중에서 한국 학술지 인용의 비율이 81.26% (14,511건)이고, 단행본은 10.33%, 학위논문은 5.13%, 그외에 학술대회 자료집, 초록집, 연보, 신문, 웹문서, 사전 등은 나머지 3.28%를 차지하였다.

계재 논문수가 많은 학술지는 인용을 많이 받는다. 논문수와 인용빈도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0.905이며, 상관계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2000년도에 학술지 계재논문수가 391편으로 가장 많은 『대한안과학회지』는 800회 인용되어 69종의 학술지 중에서 인용 빈도가 가장 높은 의학 학술지이다. 그러나 자체학술지로부터 받은 인용을 제외한 타학술지로부터 받은 인용도는 33회에 불과하며 인용도의 순위는 35위로 낮다.

창간연도가 오래된 학술지는 인용될 대상이 되는 논문을 많이 축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술지의 인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방이후 국내 최초로 창간된 의학학술지는 1948년에 창간된 『대한내과학회지』로 692회 인용받았다. 자체학술지 인용을 제외하더라도 창간연도가 오래된 학술지가 인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영향력지표 산출에는 1998년과 1999년도의 논문이 인용된 것만 사용되기 때문에, 창간연도는 영향력지표 산출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요소이다.

인용한 논문수가 많은 학술지는 학술지를 다양하게 인용한다. 한 학술지가 적게는 1종에서 많게는 149종까지 학술지를 인용하였는데, 평균적으로 한 학술지가 인용하는 학술지의 종수는 27.9종이다.

『대한간호학회지』는 인용한 논문수에 비해 매우 다양한 종류의 학술지를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한안과학회지』 같은 전문의학 학술지의 경우, 인용한 논문수는 835건으로 많지만, 27종의 학술지를 집중적으로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술지가 많이 인용되면, 그 학술지를 인용한 학술지 종수도 많아진다.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JKMS)*는 48종의

학술지로부터 176건의 인용을 받아서 가장 많은 종수의 학술지들이 인용하는 학술지로 나타났다. *JKMS*는 여러종의 학술지로부터 골고루 인용을 받는 학술지이다. 인용된 학술지 종수는 69종의 한국 의학학술지에서만 인용을 받기 때문에 모두 69종이며, 69종의 학술지는 평균 14.5종의 학술지로부터 인용되었다.

반대로, 『대한피부과학회지』와 『대한안과학회지』는 인용된 논문수에 비해 인용된 학술지 종수가 적은 학술지 즉 소수의 학술지로부터 집중적으로 인용을 받는 학술지이다.

69종의 한국 의학학술지가 인용한 한국 학술지 문헌 14,511건 중 KoMCI 학술지를 인용한 것은 12,130건으로 그 비율이 83.59%이다.

KoMCI 학술지가 아닌 학술지는 16.41%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기타 한국 의학학술지 173종은 KoMCI 학술지 69종에 속하지는 않지만, 『KoMCI 2000 보고서』에서 기타 한국의학학술지 서지정보에 나와 있는 218종 내에 속한 의학학술지들이고, 기타 한국 의학관련 학술지 174종은 KoMCI 학술지들이 인용한 학술지들인데, 폐간된 의학학술지 또는 의학관련 잡지들이 이에 속한다.

KoMCI 학술지는 국내 수많은 의학학술지 중에서 선정된 핵심 학술지군으로, KoMCI 학술지군이 전적으로 인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한국 의학학술지들은 한국 학술지를 인용할 때에 자체학술지 인용비율이 53.48%나 되므로, KoMCI 학술지가 많이 인용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2.3 자체학술지

2.3.1 자체학술지 인용도

한국 의학학술지 69종이 인용한 문헌 총 170,254건 중에서 KoMCI 학술지의 자체학술지 인용률은 4.56%에 불과하다. KoMCI 학술지들의 자체학술지 인용률은 Cell, Lancet 같은 주요 SCI 학술지들의 자체학술지 인용률이 1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낮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한국학술지를 인용하면 대개는 자체학술지를 가장 많이 인용한다. 한국 의학학술지 69종이 인용한 한국 학술지 문헌 14,511건 중에서 자체학술지를 인용한 경우는 7,760건으로 그 비율은 53.48%에 달한다 (그림 1). 이것은 저자가 소속된 관련학회 학술지 이외에 같은 주제분야

에 속하는 몇 종의 학술지밖에 이용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체학술지 인용이 높은 것은 국내 학술지 논문정보 검색과 이용이 외국학술지의 이용보다 더 용이하지 않은 것에 일부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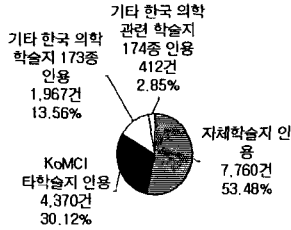


그림 1. KoMCI 학술지가 인용한 한국 학술지 논문 중 자체학술지의 인용비율 (총 14,511건)

마찬가지로 한국 의학학술지 69종에 실린 논문은 자체학술지로부터 가장 많은 인용을 받는다. 한국 의학학술지 69종이 받은 인용 12,130건 중에서 63.97%에 해당하는 7,760건이 자체학술지 인용이다.

특정 학술지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citing) 학술지가 자체학술지이듯이, 특정 학술지는 자체학술지로부터 가장 많은 인용 (cited)을 받는다.

69종의 한국 의학학술지가 KoMCI 학술지로부터 인용 받은 문헌은 12,130건인데, 이 중에서 타 학술지에서 받은 인용은 4,370건이다. 자체학술지를 제외한 다른 KoMCI 학술지들로부터 인용을 많이 받은 상위 10종의 학술지가 타 학술지로부터 받은 인용은 2,277건으로 타학술지에서 받은 인용 4,370건의 56.97%를 차지한다.

타학술지로부터 인용을 많이 받은 학술지들의 특성은 월간으로 발행되어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수가 많은 학술지이거나, 세부전문학회의 학술지보다는 모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들이다.

2.3.2 논문의 유형에 따른 자체학술지 인용

논문의 유형 (원저 논문, 증례 보고, Editorial, Letter, Review)에 따라 자체학술지 인용도를 살펴해보았다. Review 논문의 경우는 문헌유형의 특성상 그 주제의 논문들을 다양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학술지 인용 비율이 다른 유형의 논문보다 낮았지만, 논문의

유형에 상관없이 자체학술지 인용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Review는 다른 학술지에 실린 글을 많이 소개하는 것이 목적인 문헌 유형이기 때문에 자체학술지 인용 비율이 다른 문헌 유형에 비해 낮다.

2.3.3 연도별 자체학술지 인용

한국 의학 학술지 69종은 인용한 한국 학술지 문헌 중에서 최근 10년간 (1991년 ~ 2000년)의 문헌을 75.53% 인용한다. 이 중에서도 1998년과 1999년도의 문헌을 가장 많이 인용한다. 그리고 최근 연도로 갈수록 자체학술지를 인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영향력지표는 2000년도에 발행된 한국 의학학술지 69종으로부터 각 학술지가 받은 최근 2년간의 인용빈도를 논문수로 나누어 산출한 것이다. 영향력지표 산출에 사용된 수는 1998년도의 KoMCI 학술지가 받은 인용도 1,614건과 1999년도의 KoMCI 학술지가 받은 인용도 1,346건으로 KoMCI 학술지들이 받은 총 인용빈도인 12,130건 중에서 4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영향력지표 산출에 사용된 인용도 중에서 자체학술지가 인용비율은 73.14% (2,165건)이며, 이 비율은 자체학술지 인용이 한국 의학학술지의 영향력지표 산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2.4 영향력지표

일반적으로 인용의 대상이 되는 논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학술지나 게재 논문수가 많은 학술지는 인용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인용빈도도 높을 것이다. 논문수가 많은 학술지가 갖게 될 이익과 논문수가 적은 학술지가 갖게 될 불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용횟수를 게재된 논문수로 나눈 것이 영향력지표이다. 그러나 영향력지표가 논문의 질적 수준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거나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잡지일수록 영향력지표가 높게 나타나며,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는 영향력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KoMCI 2000 보고서』에 제시된 한국 의학학술지의 2000년도 영향력지표는 SCI 방식대로 2000년도에 발행된 KoMCI 학술지들에 의해 특정 학술지의 1998년과 1999년의 논문이

인용된 횟수를 그 학술지의 1998년과 1999년에 발표된 논문수의 합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것이다.

한국 의학학술지 67종에 대해 산출된 값은 표 1에 나와 있는데, 0.050에서 0.150 사이의 영향력지표값을 갖는 학술지가 32종으로 47.76%를 차지하였다.

표 1. 영향력지표의 수치별 빈도 (도수 분포표)

영향력지표	빈도	백분율
0.000 - 0.050 미만	3	4.48 %
0.050 - 0.100 미만	15	22.39 %
0.100 - 0.150 미만	17	25.37 %
0.150 - 0.200 미만	8	11.94 %
0.200 - 0.250 미만	8	11.94 %
0.250 - 0.300 미만	8	11.94 %
0.300 - 0.350 미만	5	7.46 %
0.350 - 0.400 미만	2	2.99 %
0.400 - 0.450 미만	1	1.49 %
67종		100.00 %

Note: J Genet Med와 Korean J Radiol은 제외함

2000년도 논문수와 영향력지표 간의 관계를 보면, 게재논문수가 아주 많은 학술지보다 일년에 50-70편 정도의 논문을 발행하는 계간 학술지의 영향력지표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의학회지』의 영향력지표가 0.424로 제일 높고, 『전남의대학술지』가 0.010으로 제일 낮다. 0.424라는 영향력지표값은 『예방의학회지』 논문 한편이 출판된 지 2년 이내에 평균 0.424회의 인용을 받는다는 뜻이다.

국내 의학학술지들의 영향력지표값의 최상위 값인 0.424는 SCI 학술지들의 최상위 영향력지표값인 50.340 (미국의 *Annual Review of Immunology*) 에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값이다. KoMCI 영향력지표의 평균은 0.183이다. 이는 "한 논문이 출판된 지 2년 이내에 평균 0.183회 인용된다, 논문 10편 중 2편 정도가 1회 인용된다"는 것이다. KoMCI 영향력지표의 숫자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전체 인용문헌의 8.5%만이 한국 학술지 문헌이고, 전체 인용문헌의 1.74%만이 영향력지표 산출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KoMCI 영향력지표는 전체 참고문헌수의 1.74%에 해당하는 인용문헌을 사용하여 나온 수치이다. 이것은 굉장히 적은 비율의 한국 학술지 인용을 대상으로 산출한 지표이기 때문에, KoMCI 영향력지표의 고저에 따른 학술지

의 평가는 매우 주의 깊게 해야 한다.

2.5 자체학술지 인용을 제외한 영향력 지표 (KoMCI ZIF)

2.3 자체학술지 인용도에서 보았듯이, 한국 의학학술지의 논문은 같은 학술지에 있는 다른 논문을 많이 인용하며, 동시에 같은 학술지에 있는 다른 논문들로부터 인용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한국 의학학술지 69종이 KoMCI 학술지들로부터 받은 인용 중에서 자체학술지로부터 받은 인용비율은 평균 63.97%에 이른다. 특히 영향력지표 산출에 사용되는 최근 2년간은 자체학술지로부터 받은 인용비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체학술지로부터 받은 인용은 영향력지표를 산출할 때 많은 편견을 유도할 수 있다.

자체학술지로부터 받은 인용빈도가 가장 높은 『대한 안과학회지』는 2000년도에 발행된 한국 의학학술지 68종으로부터 총 800건의 인용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767건이 자체학술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영향력지표 산출에 필요한, 1998년과 1999년도의 것은 245건인데, 이 중에서 단 5건만이 타학술지로부터 받은 인용이다. 『대한 안과학회지』의 영향력지표값은 0.266이며, 자체학술지 인용을 제외한 영향력지표값은 0.005이다. 영향력지표 (IF)와 자체학술지 인용을 제외한 영향력지표 (ZIF)의 차이는 영향력지표가 자체학술지 인용에 의해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KoMCI 2000 보고서』에서는 자체학술지 인용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자체학술지 인용을 제외한 영향력 지표값 (이하 ZIF로 지칭함)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ZIF는 자체학술지 인용도를 제외한 수치이므로, 자체학술지 인용도가 높으면 ZIF가 낮게 나오고, 자체학술지 인용도가 낮으면 ZIF가 높게 나온다. 그림 2는 한국 의학학술지 68종의 영향력지표와 자체학술지인용을 제외한 영향력지표 (ZIF)를 나타낸 것이다. 세로선의 길이는 영향력지표와 ZIF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체학술지 인용이 영향력지표의 값에 영향을 준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체학술지 인용과 타학술지 인용이 골고루 높은 학술지들은 IF도 높고 ZIF도 높게 나오는데 『감염』, 『대한내과학회지』, 『대한소화기학회지』, 『예방의학회지』가 그러한 학술지들이다.

자체학술지로부터 받은 인용도가 타학술지로부터 받은 인용도보다 더 월등한 학술지는 IF가 ZIF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대한간호학회지』, 『대한법의학회지』, 『대한산업의학회지』, 『대한안과학회지』, 『대한핵의학회지』,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등이 그러한 학술지들이다.

자체학술지로부터 받은 인용이 전혀 없어서 IF와 ZIF의 값이 일치하는 학술지는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 『대한중환자의학회지』, 『전남의대학술지』,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의 4종이다.

타학술지로부터 받은 인용이 전혀 없어서 ZIF값이 0.000인 학술지는 『대한법의학회지』, 『대한해부학회지』, 『항공우주의학』의 3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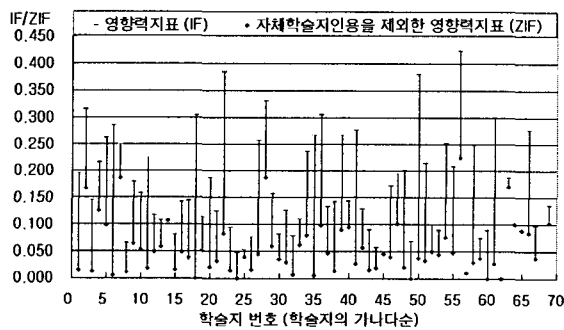


그림 2. 영향력지표 (IF)와 자체학술지인용을 제외한 영향력지표 (ZIF)의 차이

2.6 영문학술지의 영향력지표

SCI나 MEDLINE에 등재되는 국제적인 학술지여서 국내에서 많이 인용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의학학술지 69종을 대상으로 SCI 방식으로 산출한 영문 학술지들의 영향력지표 (KoMCI IF)는 높지 않으며, 다른 학술지들과 영향력지표를 비교한 순위도 대체로 낮았다. 영향력지표가 높지 않은 주요 원인은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를 제외한 영문학술지들의 자체학술지 인용도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문학술지는 대체로 자체학술지 인용빈도가 낮아서 자체학술지 인용을 제외한 영향력지표 (ZIF)는 다른 학술지들보다 높았다.

2.7 주제분야와 영향력지표

같은 주제분야에 속하는 학술지들이 5종이

상인 경우만을 추려서, 5개의 주제분야 (MEDICINE, GENERAL & INTERNAL/내과학, NEUROSCIENCES/신경과학, PEDIATRICS/소아과학,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방사선의학, SURGERY/외과학)의 학술지들의 영향력지표값과 ZIF값을 비교하여 보았다. 이 분석에서 사용한 주제분야는 SCI(Science Citation Index)에서 사용하는 주제분야 (Subject Category)를 이용하여, KoMCI 2000 사업에서 69종의 학술지에 부여한 것이다. 부여된 주제분야는 44개였고, 한 학술지당 주제분야가 최대 3개까지 부여되었다.

같은 주제분야에 속한 학술지들이 갖는 영향력지표는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며, 각 주제분야들이 갖는 최상위 영향력지표값 또한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SCI 학술지 중에서 일반의학 및 내과학 (MEDICINE, GENERAL & INTERNAL)에 속하는 학술지는 104종이 있는데, 이들의 영향력지표는 0.027에서 29.512까지 분포하며, 영향력지표는 이 학술지들의 우열을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 (JCR 2000 CD-ROM). 그렇지만, 한국 의학학술지에 부여된 영향력지표로 학술지의 우열을 구분하기에는 영향력지표값이 다양한 분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주제분야가 같은 학술지들간에 영향력지표를 비교하는 것과 주제분야간의 영향력지표를 단순히 비교하여 학술지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2.8 SCI 영향력지표값과 KoMCI 영향력지표값의 비교

KoMCI 영향력지표가 SCI 영향력지표와 함께 연구자들의 업적 평가를 위한 가중치값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KoMCI 학술지이며, SCI 학술지인 학술지들을 추출하였다. 그런데, SCI의 JCR CD-ROM에 수록되어 있으면서 KoMCI 학술지인 학술지는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EMM)*과 *Yonsei Medical Journal (YMJ)* 2종이다. 두 학술지의 SCI 영향력지표값과 KoMCI 영향력지표값을 비교하면, SCI 영향력지표값이 더 크다 (표 2). EMM은 JCR 영향력지표값이 KoMCI 영향력지표값의 4.7배이고, YMJ은 2.5배이다.

SCI 영향력지표가 더 큰 이유는 JCR은 SCI Expanded에 속하는 5,900여종의 학술지로부터

받은 인용횟수를 근거로 영향력지표값을 산출하는 반면, 『KoMCI 2000 보고서』는 국내 학술지 69종으로부터 받은 인용횟수를 근거로 영향력지표값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표 2. 2000년도 KoMCI 영향력지표값과 SCI 영향력지표값의 비교

학술지명	KoMCI 인용빈도	SCI 인용빈도	KoMCI IF*	SCI IF**
Exp Mol Med	22회	121회	0.301	1.411
Yonsei Med J	25회	235회	0.135	0.332

* KoMCI 2000 CD-ROM. 서울: 대한의학회, 2002.

** Journal Citation Reports on CD-ROM Science edition: 2000. Philadelphia: ISI, 2001.

EMM은 KoMCI 영향력지표값의 순위가 8위인데 반해, 38위인 YMJ는 영향력지표의 순위만으로 보았을 때는 KoMCI 학술지중에서 그렇게 우수한 편에 속하지 않는다. 반대로, KoMCI ZIF값의 순위를 보면 EMM은 46위이고, YMJ는 8위이다.

EMM과 YMJ의 SCI 영향력지표가 KoMCI 영향력지표의 약 3배에 해당하므로, KoMCI 영향력지표값에 3배를 곱하여 SCI의 영향력지표와 비슷한 값으로 맞추어 연구 업적 평가시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YMJ보다 KoMCI 영향력지표값이 더 높은 학술지들이 국제적으로도 YMJ보다 더 많이 인용되고 더 높은 영향력지표값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3배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즉 국내 의학학술지들이 국내에서 받은 인용의 3배 만큼 국제적으로 인용될 것이라는 것은 비약이다.

따라서, 한국 의학학술지 69종으로부터 받은 인용분석의 결과인 KoMCI 영향력지표값과 SCI 학술지 5,900여종이라는 성격과 규모가 아주 다른 집단의 학술지로부터 받은 인용을 분석한 결과인 SCI 영향력지표값을 직접 비교하거나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결론

학술지 논문은 인용받음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데, 우리나라 학술지마저도 우리나라 학술지를 거의 인용하지 않는 실정으므로, 사실상 국내 학술지는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 의학학술지가 존재 의의를 가지려면 적극적으로 한국 의학학술지의 인용

을 장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인용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여서 자연스럽게 인용이 장려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법으로서 국내 학자들이 SCI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만 가중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에도 그에 상응하는 가중치를 주어야 한다. 그 결과 우수한 논문이 외국 학술지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 학술지에 게재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내 학술지가 인용되지 않는 이유는 학술지의 논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장치인 색인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KoreaMed, 한국학술정보, MEDRIC 등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긴 하지만, 한국학술정보는 유료로 제공되는 등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 학술지논문을 검색할 만한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국내 학술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미국의 PubMed와 같이 색인 데이터베이스와 원문을 직접 링크해 줌으로서 원문의 접근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69종의 한국 의학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KoMCI 영향력지표는 0.45보다 크지 못했다. 즉 KoMCI 영향력지표는 학술지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KoMCI 영향력지표가 조금 높다고 해서 영향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이를 연구자의 연구 업적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때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내에서 인용분석연구를 의학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확대할 경우에 우리 나라에는 한 주제분야에 해당하는 학술지가 몇 종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그러한 인용분석 결과 나오게 될 영향력지표는 연구자의 업적이나 학술지를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지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대한의학회. 2001. 『대한의학회 현황: 2000-2001』. 서울: 대한의학회.
- 대한의학회. 2002. 『KoMCI 2000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서울: 대한의학회.
- 대한의학회. 2002. "KoMCI 2000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CD-ROM], 서울: 대한의학회.
-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2001. "Journal Citation Reports on CD-ROM Science edition: 2000." [CD-ROM], Philadelphia: ISI.